美 "5·18계엄 2시간전 통보 받았다"

기념재단, 미국정부 답변문건 공개 … 정치인 체포 등 미리 알지 못해

"한국 당국은 5월 18일 0시 1분 시작된 비상계엄 확대 선포 2시간 전에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 미국은 한국군 당국이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대학과 국회를 폐쇄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5·18민중항쟁 당시 미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설명한 문건이 공개됐다.

5·18 기념재단이 11일 공개한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미국정부 성명서'라는 제목의 문건은 1989년 5·18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광주특위) 활동 당시 광주특위가 미국 정부에 보낸 48개항의 질문에 대한 회신 형태로, 전체 내용을 개괄한 성명과 답변·논평 등이 첨부됐다.

질문은 5·18의 발단이 된 12·12 사건의 인지 경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시행에 대한 반응, 미국이 파악한 사태의 심각성 정도, 진압에 개입했는지 등에 관한 것 등이다.

하지만 미국은 상당 부분을 할애해 5·18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강조했으며 5·18 개입 의혹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장악된 언론 등의 사실 왜곡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또 미국이 소련과 대치상황에서 한반도 안정 유지라는 국익이 한국 민주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군사 당국의 쿠데타를 묵인한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는 "카터 행정부는 진정한 안정과 안보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정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신념을 지켰다."라고 답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달 중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5·18 기념재단을 방문한 뒤 재단 측에 이 문건을 보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

광주시, 저소득 주민 대상

광주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와 공동으로 올 하반기까지 저소득주민에게 무료로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나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다.

무료중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독거노인 등으로 전·월세 등 5000만원 이하의 주택 계약이며, 무료중개 봉사에 참여할 업소는 광주지역 1737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신청을 받아 확정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입양의 날…희망의 종이비행기 11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동구청 6층 대강당에서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주최로 열린 '제5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입양가족·입양아동 등 500여명이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순천대 총장 후보 임상규 교수 당선

제6대 순천대학교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에서 임상규(62·웰빙자원학과·전 농림부장관) 교수가 당선됐다. 〈인터뷰 16면〉 2차까지 간 투표에서 임상규 교수는 163.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52.1표를 획득한 송영무 교수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수 331.74표(직원 투표 반영비율 14%) 중 임상규 교수가 92.0표(득표율 27.73%), 송영무 교수가 77.9표(득표율 23.48%)를 얻어 1, 2위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상위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2차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유효투표수 323.01표 중 임상규 교수가 163.2표(득표율 50.5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순천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1, 2순위를 차지한 임상규 교수와 송영무 교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차기 총장의 임기는 대통령 임명 시점부터 4년이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ga@

어린이집 권리금이 1억?

광주 1153곳 난립 '포화'
도심에 신규 인가 안돼
브로커 개입 매매 활발

광주시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보류하면서 기존 민간어린이집 매매에 브로커가 끼어들고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이 붙는 이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어린이집은 1153곳이 난립하면서 각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74~75%에 불과해 경영난에 허덕이자 기존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금지하고, 신규 아파트공급지역에 대해서만 일부 인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신규 인가가 억제되면서 기존 민간어린이집 인가증이 1억원 이상의 권리금이 붙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민간어린이집에 권리금까지 붙어 거래될 경우 자칫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의 수입은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지원하고 있는 1인당 17만2000원~38만3000원의 보육료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부 이모(37)씨는 "최근 어린이집 인가증을 구입하려 했으나 권리금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에 달했다"며 "인수자가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긴축운영을 할 경우 그 피해는 어린이와 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각 자치구별로 매달 1~2건에서 최고 10여 건씩 거래되고 있는 등 최근 들어 매매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최모(45)씨는 "정원의 70%를 간신히 채울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데 브로커까지 끼어들어 거래가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마땅한 일이 없어 어린이집이라도 운영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인 듯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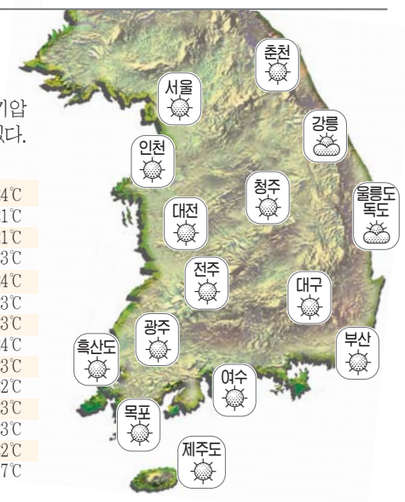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1분 해짐 19시 27분 달뜸 03시 55분 달짐 17시 48분

꽃가루의 계절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루종일 맑겠다.

광 주	맑음	9/24℃
목 포	맑음	9/21℃
여 수	맑음	12/21℃
완 도	맑음	10/23℃
구 례	맑음	6/24℃
해 남	맑음	8/23℃
장 흥	맑음	7/23℃
고 흥	맑음	6/24℃
순 천	맑음	8/23℃
영 광	맑음	6/22℃
진 도	맑음	8/23℃
전 주	맑음	7/23℃
남 원	맑음	3/22℃
흑산도	맑음	9/1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높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밀물	썰물
목포	00:54 12:55	06:16 18:17
여수	07:47 20:15	01:42 13:4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날 씨						
최저/최고	9/25	9/26	13/24	14/21	15/27	16/24

"천안함 '소설 쓰기' 소설가인 내가 졌다"

이외수씨 보수언론 등 비판

소설가 이외수씨가 자신의 트위터(@oisoo)를 통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나 보수언론 및 네티즌의 가설 등에 대해 '소설 쓰기'라고 비꼬고, 자신이 "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씨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는 소설 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소설을 써서 밥 먹고 살았지만,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다. 졌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씨는 이 글에서 누가 소설을 쓰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칭하진 않았으나 네티즌들은 행간의 의미상 정부나 보수언론을 '소설 쓰기'의 당사자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독특한 가설을 제기하는 네티즌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등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